

## 기업가적 정신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봉경\*

###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on Regional Industry

Bong-kyung Jeon\*

**요약:** 이 논문은 지역산업 구조변화 동인으로 기업가적 정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행정수장인 정치인과 신생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적 활동이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관련 연구가 아직 미미한 상황에서 정치인과 경영인이라는 각기 다른 유형의 기업가적 정신과 이에 대한 동기부여를 분석함으로써 부족한 실증연구의 지식격차를 좁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정치인의 기업가적 정신이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에 미친 영향과 사양화에 접어든 섬유산업에 뛰어든 신생업체 경영인의 기업가정신을 통한 혁신적 성장사례를 통해 지금껏 지역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가적 정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기업가적 정신, 기업가적 정치인, 지역산업정책, 지역산업 구조변화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grasp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politician and business owner on regional industry amid the rising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as the driver of structural change. In particular, it would help narrow the knowledge gap in empirical research by analysing the entrepreneurial spirit and motivation of the different trait of politicians and entrepreneurs that the relevant research is still insufficient. Through the case of politician' and business owner's entrepreneurship on the carbon industry growth of Jeollabuk-do and innovative start-up entering the lagging textile industry of Daegu, this study unearths the necessity of entrepreneurship, which has not been considered relatively much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thereby drawing the policy implication.

**Key Words :**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 politician, regional industrial policy, structural change of regional industry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Associate Director,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jeon1229@nrc.re.kr)

## 1. 서론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사회, 외교 등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 미증유의 사태에 놓여있다. 또한, 이와 같은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지난 30년간 세계 무역성장을 주도하였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구조적 한계를 보이며, 기존 가치사슬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느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Multi National Enterprise)들을 중심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외에 있는 제조공장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과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제조과정을 진행하는 버티컬 소싱(vertical sourcing)을 진행 중이다. 이는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을 지역중심의 지역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로 개편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구양미, 2020; 이상훈, 2020).

특히,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약 30%)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상 지역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역경제 및 산업의 상당수가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생산공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과 글로벌 전략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이두희 외, 2019). 군산지역을 지탱하던 양대 산맥 현대중공업과 GM의 공장폐쇄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폐쇄에 이어 미국 자동차 회사 GM의 글로벌 경영전략 변화에 따른 군산 GM 자동차 공장 폐쇄라는 약재까지 겹치며 심각한 지역경제위기로 인한 '산업위기 쇠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지역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취약할 뿐 아니라 1960년대 수출경공업 기반 도시의 쇠퇴(부산 신발산업, 대구 섬유산업 등)와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방안'에 의해 성장한 중화학산업 밀집 지역(저제 및 통영 등 조선업 기반 도시, 구미 전자산업

등)의 산업위기도 함께 겪으면서 지역기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가 다각도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가적 정신(Entrepreneurship)을 연구하고, 실제로 기업가적 정신이 기업의 혁신과 나아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장하였듯이 기업가적 정신은 미시적인 측면으로는 특정 기업의 성과, 혁신 등과 같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 요인이고, 거시적으로는 지역 내 신산업출현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역산업·혁신정책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Noseleit, 2013; Baumgartner *et al.*, 2013; McCann and Ortega-Argilés, 2016).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국내에는 아직 기업가적 정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을뿐더러 지역(산업) 내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현실이다(김학수·임규진, 2010; 장수덕, 2011). 이는 기업가적 정신이 위험감수, 기회포착 능력 등과 같은 비가시적·비계량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선행연구 역시 기업가적 정신과 관련된 정책모델 모색(중소기업연구원, 2016)과 이론적 논의(김영수, 2006)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이와 같은 부족한 선행연구 속에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만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을 이끈 정치인과 산업 경쟁력 하락과 오랜 구조조정으로 사양화에 접어든 대구 섬유산업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신생 섬유기업의 경영인을 통해 기업가적 정신이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료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한 2차 데이터 분석이다. 지역 내 정치인의 기업가적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신빙성 있는 언론과의 인터뷰 데이터 등을 토대로 과거 행정 속에서의 기업가적 정신을 찾기 위함이다. 두 번째 자료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해 대구지역 섬유산업관계자 약 50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당시 수집된 자료 중 해당 기업의 경영인과 진행했던 인터뷰 자료의 일부분만을 사용하였다.

## 2.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1) 기업가적 정신 개념

학술용어로서의 기업가(entrepreneur)라는 단어는 프랑스 경제학자 칸티옹(R. Cantillo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김주미·박재필, 2013; 이윤준, 2016; 성낙선, 2005; 김종호·오준병, 2009). 칸티옹은 위험을 감수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상인, 농부, 장인 등을 관찰한 뒤, 기업가를 확실한(certain) 가격에 대량의 상품이나 원료를 구입하고, 이를 불확실한(uncertain) 가격에 판매하여 이윤을 남겨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사실 기업과 기업가적 정신의 중요성은 신고전학파 경제모델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Baumol, 1968; Blaug, 1986), 1948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 '기업가사 연구소(the Research Center in Entrepreneurial History)'가 창립된 이후 기업, 기업가를 주요 경제주체로서 바라보는 인식이 고조되었다. '기업가사 연구소' 설립을 주도한 경제학자 조셉 슈페터(J.A. Schumpeter)는 기업가라는 개념 없이 자본주의경제를 설명하기란 불완전하다 생각하였고(성낙선, 2005), 그는 기업가를 시장기회(market opportunity)를 잘 활용하는 개인(individual)이자,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산요소를 새로운 형태로 조합하는 혁신가(innovator)로 생각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의 혁신을 통해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행위를 거쳐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일련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라 정의하고 있다(정기성, 2015).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또한 그의 저서 '혁신과 기업가적 정신(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을 통해 기업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가 생각하는 기업가는 변화를 모색하고 이를 실제적인 행동에 반영하여 기회를 창출하는 사람이다(Drucker, 1985).

종합해보면 혁신의 결과에 수반되는 어느 개인(혹은 기업)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큰 틀에서 기업가적 정신으로 바라보았으며, 슈페터는 혁신(innovation)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규정하였다 - 1) 신제품의 개발, 2)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3) 신시장의 개척, 4) 새로운 공급자의 확보, 5) 새로운 조직의 실현(Schumpeter, 1934).

한편, 문헌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정신과 기업가의 정의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기업가적 정신의 주체가 꼭 특정 개인을 의미하기보다는 기업, 기관(institution) 등으로 확대하여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기업수준(firm-level)에서 기업가적인 활동도 개인과 크게 다를 건 없으나, 새로운 시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위험감수성(risk-taking), 기존에 존재하는 생산·서비스요소들을 적극 활용하는 혁신성, 조직의 쇄신성, 그리고 이들 과정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성 등의 활동을 기업수준(firm-level)에서의 기업가정신으로 바라본다(Miller and Friesen, 1978; Sharma and Chrisman, 1999; 장수덕, 2011).

이처럼 기업가적 정신은 지역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 변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찍이 미국과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는 기업가적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기업가적 발견과정을 통한 스마트 특성과 전략 체계/framework)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연합은 국가 나아가 지역기반의 기업가적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사업세 및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소액대출 및 초기투입자본 지원, 그리고 기업가적 정신 함양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McCann and Ortega-Argilés, 2016).

## 2) 기업가적 정신 선행연구 검토

기업가적 정신이란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혁신적 활동으로 주로 새로운 사업기회 포착이나 창업의사 결정 같은 개인 혹은 기업의 행동을 의미하지만, 이는 비가시적인(invisible) 형태를 띠고 있기에 다양한 대용지표들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Acs *et al.*, 2009). 기존 문헌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지역 내 신규 창업 수와 기업가 정신(Spinelli and Adams, 2016; Lee *et al.*, 2004), 기업가 개인의 교육수준과 기업가정신(Oosterbeek *et al.*, 2010; Westhead and Solesvik, 2016),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가정신(Audretsch and Keilbach, 2004; Acs *et al.*, 2009; 김학수·임규진, 2010), 특허와 기업가정신(Acs *et al.*, 2009; 김학수·임규진, 2010; Motohashi, 2016)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연구가 주로 민간분야에 속한 기업이나 기업가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구성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공공분야에서의 기업가적 정신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Zerbinati and Souitaris, 2005; Nyström, 2013).

먼저 살펴볼 것은 지역에서의 신규창업 관련 연구이다. 지역 내에 신규창업 증가와 기업가적 활동의 촉진을 위해서는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지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지역의 개방성,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 측면에 초점을 뒀다. 이는 벤처창업단지(entrepreneurial zone), 세계 혜택 같은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인재 유입 요소로 다른 국가나 지역출신이 이주 지역에 쉽게 뿌리내려 정착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방적 정주요건 및 비즈니스 환경이 지역의 기업가적 정신 함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Lee *et al.*, 2004; Dohse and Walter, 2012).

미국과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은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이 기업가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정식 교과과정(curricular)에 편입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상

당수의 실증연구 역시 이와 같은 교육이 기업의 기업가적 활동 촉진과 신규기업 창업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하였다(Van der Sluis *et al.*, 2007; Karlan and Valdivia, 2011).

그러나 Westhead and Solesvik(2016)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교육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사회적·관습적 환경 같은 요소로 인해 수업을 이수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육에 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Oosterbeek *et al.*(2010)의 실증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활동이나 신규기업 창업의 동기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학수·임규진(2010)은 2000년대 국내 16개 시도의 기업가정신 추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내에 연구개발투자와 특허출원이 증가하면 기업가정신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 내 총생산보다 높을 경우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기업가정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 내 산업구조가 특정 산업으로 고착화 되어있을 경우에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활동도 다르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지역 내 다른 동종(homogeneous) 업체와의 교류 확대와 지식파급 효과로 인해 기업가정신이 확대되는 반면에 규모가 작은 개입사업체의 경우에는 기업가정신이 위축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그들의 제한된 연구개발 역량으로 인해 지역에 내재한 전문화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 회사법인보다 뒤처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국내 실증연구의 결과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가정신 간의 양의 상관관계라는 기존 사례연구(Audretsch and Keilbach, 2004; Acs *et al.*, 2009)의 실증결과와 부합한다. 그러나 특허출원이 기업가 정신을 확대한다는 분석은 실증연구 별로 차이를 보여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학수·임규진(2010)은 기업체 규모가 큰 회사법인의 경우 특허를 통한 지적재산

권 보호로 기업가정신이 확대된다는 가설을 지지하였으나, Acs *et al.*(2009)의 경우 특허출원 증가는 신생기업과 후발기업(late movers)에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기업가정신을 저해한다고 분석하였다. 일본기업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한 Motohashi (2016)는 규모가 큰 회사 법인의 경우 특허와 특허출원을 위한 연구개발 등과 같은 기업가적 활동이 기업(특히 첨단산업)의 생존율(survival rate)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기업생존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출원을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연구개발비, 시제품의 상업화 과정을 위한 투자 등)이 클수록 기업의 생존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았다. 대신,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출원이 기업의 성장(즉, 경쟁력 제고)에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정신 관련 실증연구는 사용하는 대응지표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정책보고서와 학술지에서는 기업가적 정신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글로벌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측정하는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 3. 지역산업에 미친 기업가적 정신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에 미친 기업가적 정신의 사례 연구를 위해 전라북도의 탄소산업과 대구지역 섬유산업을 조사하였다. 특히, 오랜 시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았던 대구 섬유산업과 달리 전라북도의 탄소산업은 지역 내에 산업·지식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6년 이후 새로이 태동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에 전주시장 시절부터 탄소산업 육성에 앞장섰던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의 정치인으로서의 기업가적 활

동에 초점을 둔 조사를 진행하였다.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정치인과 같은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인물의 인터뷰는 일정을 잡는 것부터 실제 진행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걸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ertz and Imber, 1993; Welch *et al.*, 2002).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정치인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2006년 송하진 도지사의 전주시장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언론 인터뷰 등을 분석하였다.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기업가적 정신 연구를 위해서는 대구지역의 비교적 신생기업(new firm)의 경영인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99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년이 넘는 본격적인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산업경쟁력을 잃은 상당수의 지역기반 섬유업체가 폐쇄한 상황에서 새로이 기업을 시작한 기업인의 동기와 그들의 기업가적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대구 섬유기업의 기업가 인터뷰는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수집한 인터뷰 데이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1) 전라북도 탄소산업

전라북도 탄소산업 성장배경은 다소 독특하다. 탄소산업 관련 산업·지식기반이 전혀 없을뿐더러 지역 내에 제대로 된 주력산업조차 없던 제조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 없던 전라북도에 탄소산업 특화산업단지과 효성이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입주하면서 전에 없었던 소재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라북도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연구환경을 탓하기 무색하게, 효성은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 현재 연 2,000톤 규모인 생산규모(1개 라인)를 세계 최대 규모인 연 2만 4,000톤(10개 라인)까지 확대하여 전라북도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지역에 전에 없던 신산업의 출현 이면에는 지난 15년간 탄소산업육성을 위해 기업가정신으로 고군분투한 정치인이 있었다.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이하 송 지사)는 본인이 전주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6년부터 전라북도 지역을 국내 탄소산업의 핵심 메카이자 국가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에는 그 용어조차 다소 생소했던 '탄소산업'은 송 지사가 2006년 전주시장으로 취임한 뒤, "전주시가 주력산업으로 탄소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며 널리 알려졌다 (투데이안, 2019년 8월 22일 인터뷰).

물론, 전주시의 육성산업으로 탄소산업이 결정되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먼저, 탄소산업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의 연구와 자본이 필요한 부품소재산업에 투자할 기업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국가 차원의 지원도 없었던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송 지사에게 탄소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 준 사람은 당시 전주기계리서치센터 센터장이던 강신재 교수였다. 국내 처음으로 탄소섬유 탄소화 설비 등을 구축하여 복합재 응용기술 개발을 진행하던 강 교수는 강철 대비 비중이 5분의 1인데 강도는 10배 이상인 썬의 신소재라 불리는 탄소섬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고강도 경량화 복합소재로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항공기, 자동차, 자전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도 연간 11% 이상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수요량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 지사에게 미래산업의 '쌀'인 탄소산업을 전주시 주력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하였다. 송 지사는 강 교수를 비롯한 지역 내 탄소산업 관련 지식이 풍부했던 연구원들 덕분에 탄소산업 육성의 꿈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 결과, 국내 지자체로는 최초로 탄소섬유 관련 연구개발 및 시험용 설비를 구축하였고, 안정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탄소산업 전담부서를 시에 설치하여 기업유치 도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당시 척박했던 상황과 그럼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송 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내에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탄소소재 상품도, 연구개발 기반도 없었다. (...) 이 같은 상황에 탄소산업*

*을 육성하겠다고 하니 다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나 산업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제조업 기반이 없었기에 무모함 보다는 가능성이 더 크게 보였다."*(서울신문, 2020년 12월 2일 인터뷰).

이처럼 위험부담(risk-taking)을 감내하는 과감한 의사결정과 아직 생소한 블루오션 시장을 기회로 포착하여 전담부서 등을 만든 덕분에 전라북도 전주에 효성이라는 대기업을 유치하였지만, 공장부지 매입 과정에서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극심한 반대와 자치단체 간(전라북도와 전주)의 갈등으로 기업유치가 무산될 뻔한 경험도 있었다.

송 지사는 탄소섬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한 뒤, 이를 활용하여 탄소섬유를 실제 생산할 대기업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당시 공업 섬유분야에서 국내 선두주자였던 효성을 선택하였고, 효성은 전문가를 2차례나 전주에 파견해 장비 및 생산환경을 점검하는 등 손익계산을 꼼꼼히 따진 뒤, 2008년 전주시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효성의 전주공장 입지를 둘러싸고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생각은 달랐다. 전라북도는 균형개발을 이유로 효성 측을 찾아가 전주가 아닌 땅값이 저렴한 완주에 공장을 지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 시기는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의욕적으로 기획해 놓은 경전철 산업을 송 지사(당시 전주시장)가 중단 선언을 하며 자치단체 간 냉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 탓에 양 자치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감정이 악화된 때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정치인인 송 지사는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처럼 본인이 직접 발 벗고 나서, 당시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과 이상은 효성 부회장을 수차례 만나 전주시에 공장이 설립되도록 설득하였다. 또한, 공장부지 확보를 시정 최우선 사업으로 삼아 총력을 기울인 끝에 가까스로 공장부지 매입 문제도 해결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적 활동을 하는 정치인과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대기업을 제조공장이 지

역 내에 입주하였고, 2008년 1월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전북분원이 탄소섬유 복합소재 개발, 기능성 탄소복합소재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해 완주에 설립되면서 지역단위 탄소산업육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숙원 사업인 ‘탄소소재법’이 개정되면서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되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승격의 의미는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관련 정책, 연구개발,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총 지휘하는 종합컨트롤 타워가 전라북도에 입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탄소산업의 메카로 인정받음을 뜻하기도 하다.

송 지사는 탄소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년 8개월의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탄소소재법

개정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발 벗고 나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은 국가 주도하에 수십 년간 대규모 투자를 거듭해 탄소산업 강국을 만들었다. (...) 탄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없이는 전략물자인 탄소산업의 생태계 구축은 물론이고 소재강국 대한민국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2020년 5월 1일 인터뷰).

앞선 인터뷰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와 민간에서조차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첨단소재부품산업인 탄소산업의 육성은 기업가적 정신으로 신산업 육성의 집념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가 시와 도의 행

표 1. 전라북도 탄소산업 주요 추진 사항

2006년 7월	전라북도, 미래 주력산업으로 탄소산업 선정
2007년 12월	국내 최초 탄소섬유 생산설비 구축
2008년 1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설립
2008년 10월	기계탄소기술원 설립
2010년 6월	전국 최초 탄소산업 전담부서 설치
2013년 4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립
2014년 4월	민선6기 전북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 탄소산업 선정
2015년 5월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
2015년 7월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2015년 7월	“탄소산업 2025 비전” 발표
2016년 5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7년 3월	한국탄소진흥원 설립 대통령 공약 선정
2017년 - 2021년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2018년 - 2022년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추진
2019년 - 2020년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2019년 8월	효성첨단소재(주) 대규모 증설투자협약 체결
2019년 9월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
2020년 5월	탄소소재법 개정
2020년 9월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규제 특구 지정
2020년 11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2020년 12월	2020-2024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착수

자료: 서울신문(2020), 전라북도(2017)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정을 맡은 지난 15년 동안 관련 산업기반조차 없던 전라북도(전주)에 연구개발센터, 생산설비 구축, 지역단위 산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을 유치하였고, 탄소산업 지식과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과 관련법 제정을 통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승격에까지 관여하며 송 지사에게는 ‘대한민국 탄소산업 전도사’라는 수식이 붙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방의 한 자치단체의 전략산업으로 시작한 탄소산업이 송 지사를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 연구원, 공무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노력으로 전라북도의 산업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탄소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 2016년 120개에서 2020년 166개로 46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 역시 2016년 1,950명에서 2020년 2,627명으로 677명 증가하였다(한국은행, 2020). 또한, 내년 초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원하면 탄소산업 관련 지역의 일자리와 사업체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인터뷰는 송 지사의 지난 기업가적 활동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역에서 시작한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한 일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에서, 그것도 제조업 기반이 없는 전북에서 시작했으니 우여곡절은 얼마나 많았겠나.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어왔고, 중앙부처에서는 무시도 많이 당했다. 효성 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개밥을 주면서 땅주인을 기다려보기도 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 (전북일보, 2020년 5월 31일 인터뷰).

Schumpeter(1934)와 Drucker(1985)가 정의한 기업이 정신에 맞춰 송 지사를 살펴보면, 정치인(행정수장)으로서 경공업 기반의 지역 주력산업 전환을 위해 탄소산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였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와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는 15년이란 시간 동안 독심 있게 자신의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출현시켰고, 나아가 특출한 기반산업이 부재한 전라북도에 새로운 성장패러다임과 산업동력을 제공하였다.

## 2) 대구지역 혁신섬유기업

1960-70년대 수출효자 종목이던 섬유산업의 메카로 여겨지는 대구지역은 1990년대부터 지역주력 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겪었다. 저렴한 인건비의 중국 등 주변국 부상과 아시아 금융위기, 섬유쿼터제 폐지 등 대내외적인 악재 탓에 급격히 경쟁력을 잃은 대구 섬유산업은 1999년 김대중 정권 들어와 진행된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다시 활력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밀라노 프로젝트 불리는 1차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성과 부족과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견디지 못한 지역 내 중견 섬유기업의 붕괴로 1999년 약 1,200여 개에 달하는 대구 지역 섬유업체는 10년 뒤 2009년에는 728개로 약 40%나 감소하였고, 종사자수도 2만 5천 명이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기존 사업체도 경쟁력을 잃고 도산·폐쇄하며 사양화 단계에 접어든 대구지역 섬유업계에 2010년 새로이 문을 열고 승승장구하는 회사(이하 A기업)가 있어 대표이사(이하 A대표)를 만나 2시간 정도 심층 인터뷰를

표 2. 대구지역 섬유·의복산업 현황

	1999		2002		2005		2009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천명)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천명)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천명)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천명)
섬유·의복 제조업	1,189	45	1,171	39	827	24	728	2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진행하였다.

A대표는 회사를 창업하기 전 안경회사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하였다. 당시에는 일본이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가량인 초극세사 원단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안경 클리너 산업을 선점하고 있던 상황인데, 국외 바이어(buyer)들은 일본 제품의 단가가 비싸 적지 않은 고심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A대표는 제품가격은 일본 업체보다 저렴하면서 품질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당시 한국의 코오롱, 효성, 휴비스 등과 같은 업체의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대구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염색산업단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A대표가 창업을 마음먹게 된 계기가 되었다.

대구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에 자리를 잡은 A업체는 창업 초기부터 대구지역 내에 이미 구축되어 있던 섬유기반시설을 잘 활용하였다(그림 1 참고). 먼저, A업체 바로 길 건너편에는 스마트패션소재와 디자인학과가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가 있다. 지리적 접근성으로 해당 학과 교수들과 제품의 디자인과 소재에 대해 빈번히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이 실제 A업체에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더욱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 A대표는 회사도 딱딱한 공장형식이 아닌 미술관 갤러리처럼 아늑하게 꾸며 놓았고, 직원을 위한 복지에도 신경 쓰다 보니 지역 내 섬유학과 졸업생들을 수월하게 회사에 유입할 수 있었다.

저렴한 가격의 차별화된 고품질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도 A기업은 대구지역의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밀접한 협업을 하였다. 다음은 A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다.

“저희도 일본의 고급제품을 벤치마킹하는데, 제품을 분석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제품 분석을 의뢰하면, 한국 어느 업체의 원사를 이용하고, 제직은 어디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십니다. (...) 사실 원사도 중요하지만, 초극세사 원사는 돈만 있으면 어느 업체에서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사를 가지고 똑같은 염색소에 가더라도 제품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 염색과정에서 저희는 염색·가공전문연구원 다이텍으로부터 조언을 얻습니다. 공정 대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만, 이처럼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 지역 내 노하우가 풍부한 연구소들로부터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한 도움을 크게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2016년 12월)

A기업의 인력구성은 다른 섬유기업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연구개발 부서가 있지만, 지역 내 축적된 지식을 가진 연구소나 대학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수월한 점으로 인해, 인력 대부분을 해외영업, 마케팅, 디자인부서에 배치하였다. 이는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고급 클리너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므로 처음부터 수출에 초점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A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저희는 해외 전시회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데, 1년에 평균적으로 30회 정도 전시회에 참석합니다. 올해 전 세계 1,030업체에 저희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주로 미주쪽 업체이고 그 다음이 유럽입니다. 국내는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력의 80%는 영어권 영업팀이고, 일본, 중국, 국내 이렇게 언어별로 팀을 나눠서 운영합니다. (...) 최근 고급브랜드 업체는 자사의 안경, 시계, 귀금속 클리너 제품에 고객의 이름을 새기는 등 맞춤형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유명박물관의 파우치에 명화 등이 프린트 된 기념품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맞춤형 후가공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저희는 섬유제품 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이너 인력채용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2016년 12월)

이처럼 A업체는 기존 일본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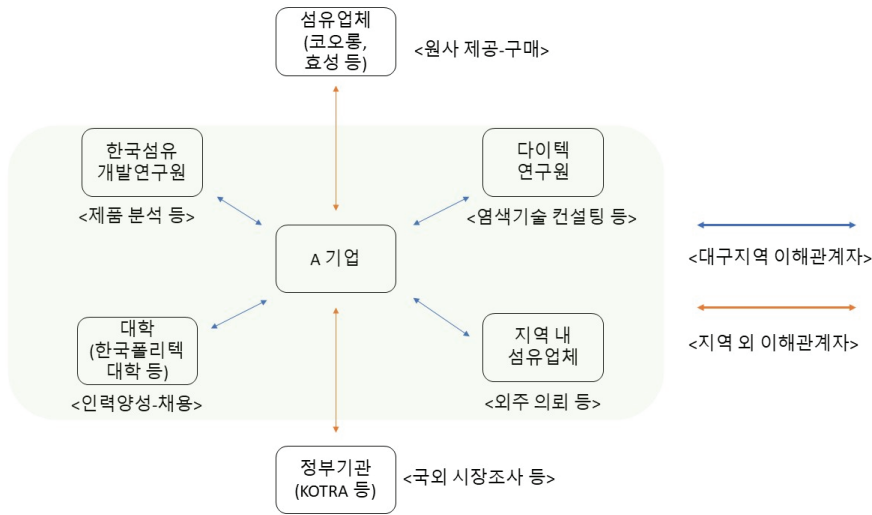


그림 1. A기업과 지역 내/외 산업네트워크 관계

초극세사 클리너 시장에 후발주자로 참여하였지만, 대구에 내재한 풍부한 섬유산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영업 인력을 채용했을 뿐 아니라,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국외 시장조사와 사업체 정보 등과 같은 도움을 받으며 자사 제품의 홍보와 수출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1〉과 같은 지역 내/외 산업네트워크 활용과 고객맞춤형 차별화 된 제품디자인 제공 그리고 틈새시장 등을 노린 혁신전략 덕분에 2010년도에 설립된 A업체는 2014년에 수출 1,000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현재는 100개국 2,500여 개 업체에 수출하면서 약 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치인과 기업인의 기업가적 정신이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라북도 탄소산업과 대구에 소재한 섬유중소기업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다음과 같다.

첫째, 오롯이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지방행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정치인(지방행정 수장)의 기업가적인 행동이 지역단위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Zerbinati and Souitaris(2005)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지역기반 정치인의 기업가적인 활동은 지역구에서의 재선, 더 높은 자리의 선거를 위한 민심확보,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의 특혜 등의 동기부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송 지사의 기업가적인 활동은 지역 내에서의 확고한 정치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해 더 큰 행정구역의 수장으로 이동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지역에 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였고, 나아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까지 육성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국가가 불확실성과 혁신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야 한다는 경제학자 마리야나 마추카토의 기업가적 정부(the entrepreneurial state) (Mazzucato, 2015)와 비슷한 맥락으로 송 지사도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선제적 투자와 함께 민간과 중앙정부를 설득하며 나아갔다는 점에서 ‘공공에서의 기업가적 정신’ 혹은 ‘기업가적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구지역 A기업의 혁신적 비즈니스 활동과 지역 내/외 산업네트워크 활용 사례를 통해 사양산업으로 여겨지는 섬유와 같은 전통산업도 제품혁신과 해외시장 개척, 틈새시장 공략 등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섬유산업은 국내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잃어 사양화에 접어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라(ZARA), 에이치앤엠(H&M) 같은 의류 SPA기업 등은 혁신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즉, 지난 시간 「공급발전법」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호와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은 국내 섬유, 염색업체들은 제도적 장치 하에 체질개선 없이 안주하며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A기업 같은 신생업체의 출현은 지역 섬유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이렇듯, 정책입안자는 의식주의 한 축인 '의(衣)'와 연계된 섬유산업 자체는 인류와 함께 지속해서 함께 나아가는 산업이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는 아직 부족한 기업가적 정신과 지역산업과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험적 연구에 대해 공헌을 하였다. 지역 정치인의 기업가적 활동은 지금까지 제조 기반도 제대로 없던 지역을 첨단 소재부품 산업단지의 메카로 바꾸었다. 마찬가지로 생긴 지 10년도 안 된 지방의 한 중소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의 5%를 차지하며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았고, 전 세계 유명 브랜드와 박물관에 제품을 납품하는 성취를 이뤄냈다. 이처럼 지역산업의 육성 그리고 재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기업가적 정신을 보인 우수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업가적 발견과정(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에 의한 방향성 정책기획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정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기업가적 교육이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개인(individual), 기업 그리고 조직(institution)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구양미, 2020, “코로나19와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3), pp.209-228.
- 김영수, 2006, 기업가정신과 지역발전 : 이론적 접근, 산업연구원.
- 김종호·오준병, 2009, 규제,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산업연구원.
- 김주미·박재필, 2013,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정보화연구 10(2), pp.237-249.
- 김학수·임규진, 2010, “지역별 기업가정신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pp.470-486.
- 서울신문, 2020, ‘탄소산업 전도사’ 15년 특집… 전북이 미래 먹거리 이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2014016&wlog\\_tag3=naver](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2014016&wlog_tag3=naver)(최종열람일: 2020년 12월 6일)
- 성낙선, 2005, “슈퍼컴퓨터, 경제발전 그리고 기업가의 역할,” 경제학연구 53(4), pp.147-171.
- 이두희·김송년·유이선·김지수, 2019, 지역산업위기 유형부석과 위기대응방안 및 산업전환전략, 산업연구원.
- 이상훈, 2020, 코로나19로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한계, 해결대안, 경기연구원.
- 이윤준, 2016, 국내 대기업의 기업가정신 수준 진단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장수덕, 2011,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차이: 기업수준에서의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4(3), pp.49-75.
- 전라북도, 2017, 전라북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안), 전라북도.
- 전북일보, 2020, [창간 70주년] 전북 탄소산업 역사 ‘태동부터…성장까지’,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654>(최종열람일: 2020년 12월 6일)
- 정기성, 2015, “기업가 정신에 대한 철학적 접근,” 인터넷비즈니스연구 16(1), pp.53-65.
- 중소기업연구원, 2016, 기업가정신을 위한 정책모델 모색, 중소기업연구원.
- 투데이안, 2019, [영상]송하진 도지사, 전북 전주에 탄소산업이 왜 탄생했나!,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83>(최종열람일: 2020년 12월 6일)
- 프레시안, 2020, [인터뷰] 송하진 지사 “전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首都)의 꿈 한발짝 더,” <https://www.pressian.com/>

- pages/articles/2020050111425581710#0DKU(최종열  
 랍일: 2020년 12월 6일)  
 한국은행, 2020, 전북지역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섬유산  
 업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은행 전북본부.
- Acs, Z. J., Braunerhjelm, P., Audretsch, D. B. and Carlsoon,  
 B., 2009,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  
 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32(1),  
 pp.15-30.
- Audretsch, D. B. and Keilbach, M., 2004, "Entrepreneurship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Regional Studies*  
 38(8), pp.949-959.
- Baumgartner, D., Pütz, M. and Seidl, I., 2013, "What kind  
 of entrepreneurship drives regional development in  
 European non-core regions? A literature review on  
 empirical entrepreneurship research," *European Planning*  
*Studies* 21(8), pp.1095-1127.
- Baumol, W., 1968,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58(2), pp.64-71.
- Blaug, M., 1986, *Economic History and the History of*  
*Economics*, New York University Press.
- Dohse, D. and Walter, S. G., 2012, "Knowledge contex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students," *Small*  
*Business Economics* 39(4), pp.55-70.
- Drucker, P. F.,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New York: Harper & Row.
- Hertz, R. and Imber, J. B., 1993, "Fieldwork in elite settings:  
 Introduction,"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22(1), pp.3-6.
- Karlan, D. and Valdivia, M., 2011, "Teaching entrepreneur-  
 ship: Impact of business training on microfinance cli-  
 ents and institutio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  
*tics* 93(2), pp.510-527.
- Lee, S. Y., Florida, R. and Acs, Z., 2004, "Creativity and en-  
 trepreneurship: A regional analysis of new firm for-  
 mation," *Regional studies* 38(8), pp.879-891.
- Mazzucato, M., 2015,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Sector Myths*, Anthem Press.
- McCann, P. and Ortega-Argilés, R., 2016, "Smart special-  
 isation, entrepreneurship and SMEs: issues and chal-  
 lenges for a results-oriented EU regional policy,"  
*Small Business Economics* 46(4), pp.537-552.
- Miller, D. and Friesen, P. H., 1978, "Archetypes of strategy  
 formulation," *Management science* 24(9), pp.921-933.
- Motohashi, K., 2016,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  
 first look at the linkage data of Japanese Patent and  
 Enterprise Census," *Seoul Journal of Economics* 29,  
 pp.69-94.
- Noseleit, F., 2013, "Entrepreneurship,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23(4), pp.735-766.
- Nyström, K., 2013, "Entrepreneurial politicians," *Small*  
*Business Economics* 41(1), pp.41-54.
- Oosterbeek, H., Van Praag, M. and Ijsselstein, A., 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  
 trepreneurship skills and motiv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4(3), pp.442-454.
-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rma, P. and Chrisman, J. J., 1999, "Toward a Reconciliation  
 of the Definitional Issues in the Field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3(3), pp.11-28.
- Spinelli, S. and Adams, R. J., 2016.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up>st</sup> Century*, McGraw-Hill  
 Education.
- Van der Sluis, J., Van Praag, M., Van Witteloostuijn, A.,  
 2007, *Why are the returns to education higher for en-*  
*trepreneurs than for employees?*, IZA Discussion Papers,  
 No.3058.
- Welch, C., Marschan-Piekkari, R., Penttinen, H. and  
 Tahvanainen, M., 2002, "Corporate elites as in-  
 formants in qualitative international business re-  
 search,"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1(5), pp.611-  
 628.
- Westhead, P. and Solesvik, M. Z., 2016,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 female  
 students benefit?,"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34(8), pp.979-1003.
- Zerbinati, S. and Souitaris, V., 2005, "Entrepreneurship in  
 the public sector: a framework of analysis in

European local government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7(1), pp.43-64.

최초투고일 2020년 12월 08일

수정일 2020년 12월 21일

최종접수일 2020년 12월 24일

교신: 전봉경,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  
국책연구단지, 전화: 044-211-1151, 이메일: jeon1229  
@nrc.re.kr

Correspondence: Bokg-kyung Jeon, Center for Research Strategy,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 City, 30148, Korea, Tel: +82-  
44-211-1151, Email: jeon1229@nrc.re.kr